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column 칼럼	아마 유통만으론 안 되겠지만, 유통은 정말 중요하다 조봉권 / 국제신문 부국장 겸 문화라이프부장
issue 이슈 1	부산 지역 문화예술 유통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김형중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연구본부 부연구위원
issue 이슈 2	부산을 '공연예술 국제시장'으로 이종호 /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 예술감독
문화+노동	예술인은 근로자인가요? 서해든 / 부산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부 주임, 공인노무사
세계는 지금	축제로 시작해 도시와 국가를 연결하는 문화외교 프로그램 '모멘텀(Momentum)' 원항미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정책보고서 훑어보기	2022년 부산 장애예술인 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훑어보기 이상헌 / 춤 평론가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023. 07. ~ 09.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22호 | 2023. 07. ~ 09.

이번 22호에서는 축제의 계절인 가을의 시작을 알리고자 ‘지역 문화예술의 유통 생태계’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유통한다는 것, 부산과 타 도시의 사례, 지역 발신 축제들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영국 에든버러 축제 ‘모멘텀(Momentum)’ 참여기를 통해 도시 간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중요성 또한 살펴보고자 합니다.

column 칼럼

03 아마 유통만으론 안 되겠지만, 유통은 정말 중요하다

조봉권 / 국제신문 부국장 겸
문화라이프부장

issue 이슈 1

06 부산 지역 문화예술 유통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김형중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연구본부 부연구위원

issue 이슈 2

09 부산을 ‘공연예술 국제시장’으로

이종호 /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
예술감독

문화+노동

11 예술인은 근로자인가요?

서해든 / 부산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부 주임,
공인노무사

세계는 지금

14 축제로 시작해 도시와 국가를 연결하는 문화외교 프로그램 ‘모멘텀(Momentum)’

원항미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정책보고서 톺아보기

18 2022년 부산 장애예술인 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톺아보기

이상현 / 춤 평론가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1 2023. 07. ~ 09.



아마 유통만으론 안 되겠지만, 유통은 정말 중요하다

조 봉 권

국제신문 부국장 겸 문화라이프 부장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이번 호 주제가 ‘유통’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는 가벼운 흥분을 느꼈다. 무언가 가슴속 격동의 스트링을 살짝 건드리는 느낌을 받았다. 왜 그랬을까? 부산의 예술문화 현실·과제·방향을 놓고 그간 고민하면서 정작 유통 측면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자책이 덮쳐 왔기 때문이다. 더 큰 이유도 있다. 예술 전반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을 조금만 둘러봐도, 유통 영역의 비중과 중요도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플랫폼 경제’ 말이다.

아주 단순화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공들여 잘 만든 상품이 있다. 이 상품이 네이버쇼핑이나 아마존에서 검색이 되는 경우가 있겠고,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다. 운명은 어떻게 될까? ‘온라인 유통업’으로 몸을 일으킨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가 2022년 현재 세계 제2위 부자(순자산 1710억 달러)인 사실은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 너무 커버린 유통의 힘과 영향력을 말해준다.

예술가는 뜻밖에 유통에 목마르다

부산의 이광 시조시인과 정희경 시조시인은 올해 5월 영문으로 번역한 2인 공동 시조집 ‘K-Poem Sijo: the Root of the Korean Wave’를 아마존에 올렸다. ‘시조, 한류의 뿌리’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다. 9월 3일 현재 이 시조집의 베스트셀러 순위는 아마존의 전자책 킨들(Kindle) 스토어에서 3백39만5912위로 존재감은 미미하다. 하지만 킨들 스토어의 아시아 문학(Asian Literature) 분야로 좁히면 순위는 743위다. 아시아 문학 부문에서 전자책이 아니라 종이책으로 팔린 순위는 5203위다. 모집단 규모를 알 수 없어 이런 수치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짐작이 안 되지만, 높은 순위가 아닌 건 분명하다.

그렇다 해도 ‘킨들 스토어 아시아 문학 743위’면 왠지 선방하는 느낌도 있다. ‘아시아 문학 100위’ 안에 한국 책은 현재 6종이 있는데 모두 외국인이 한국어 학습을 하는 데 유용한 이야기책(예컨대 Korean Stories for Language Learners)이지, 시 소설 등 이른바 정통 문학도서는 거의 안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덩치가 작은 장르인 시조가 이 정도면….

이광과 정희경, 두 시조시인은 한국의 시조시인이 쓴 시조 단행본이 아마존에 올라간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시조 세계화를 오래전부터 꿈꿔온 한국 시조시인들의 유통 경로 갈등과 도전을 이 사례에서 본다.

부산의 인디 밴드 세이수미는 광안리 해변에서 주로 공연하다가 서울 또는 중앙을 우회해 곧장 세계로 나가버린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방호정 작가가 그간 세이수미에 관해 꾸준히 쓴 글을 읽어 보면, 이 밴드는 여전히 해외 공연 일정이 꽤 많다. 부산 광안리에서 곧잘 직접 만든 영어 노래를 흥얼거리던 세이수미는 서구의 팬과 전문가에게 발견돼 몇 차례 '본토'(영국 미국 등) 공연을 거친 뒤 곧장 '해외 투어 밴드'가 됐다.

‘창작’에 집중된 에너지와 지원

위의 두 사례가 ‘과연 정확히 유통과 관련된 일이나’는 반론이 있을 줄 안다. 내가 다시 들여다봐도 이 사례들이 ‘유통’이라는 과녁에 정확히 꽂히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유통과 관련된 사안이 아닌 것도 아니다. 하고 싶은 말은 이렇다. 부산의 예술계는 대체로 유통에 관해 역량을 크게 기울이지 않았거나 그럴 여력이 모자랐다.

최근 10~15년 사이 부산 예술, 특히 순수 예술 계통에서 지원금 제도가 정비되면서 예술에 대한 지원금은 거의 상수가 됐다. 국가와 지자체가 공적 재원을 투여해 예술을 진흥하고 사회에 창의력·활력·아름다움을 제공하는 일은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런 지원이 주로 ‘창작’ 영역으로 쏠리면서 몇 가지 현상이 파생되기도 했다. 지원금이라는 존재의 비중이 매우 커졌다. 지원금만큼 작품이 나오기도 했다. 이 지원금은 대체로 작품 창작에 투입됐다. 이를 통해 좋은 작품이 곧잘 나왔다. 이 과정에서 창작에 엄청난 에너지가 생성되고 발휘되기는 했는데, ‘그다음’ 또는 ‘다음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 또는 현상이 생겼다.

공연은 단발성이 많았고, 책은 일단 출판만 되고 나면 관심이 되어 어떤 플랫폼에 이 책을 배치하면 더 많은 독자를 만날지 고민하는 데로 이어지기 힘들었다. 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의 바탕을 이루는 철학은 ‘이렇듯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도와 실험은 시장에서 인기리에 팔릴 가능성이 적으므로, 공적 지원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는 유무형의 가치와 이익을 수확한다’이다. 그런데 이런 인식은 ‘부산에는 예술 창작자는 많지만, 이를 떠받칠 시장은 없다’는 쪽으로 고착됐고 ‘어떻게 이 작품을 더 널리 알리고 보급할지’ 진화하는 방향을 사실상 차단했다. 유통에 관해 고민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창작에 에너지를 쏟고 나면 거기까지 생각할 힘이 남아 있지 않았던 현실도 분명히 있다.

어느 날 공연장에서 ‘왜 이 좋은 걸 나 혼자만 보고 있지’ ‘이 작품을 왜 단발성으로 끝내고 말아야 하는 걸까? 아마 이 작품의 존재도 모르는 시민이 절대다수일 텐데’ 하는 상념에 젖은 밤이 많았다. 그런 와중에 존경하는 공연예술가가 “나는 여전히 좋은 작품을 만들면 관객은 오게 돼 있음을 믿는다”고 말할 때, 나는 속으로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라고 읊조렸다.

어쩌면 안 가본 길

그러는 사이 플랫폼 경제 시대가 왔고, 거의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어지는 초연결시대가 왔고, 문화예술교육 시대가 왔다.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이 최근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 학생공연예술마켓 어릴적 예(藝), K-아트페스티벌 등을 잇달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이어 단발성 공연의 재공연 지원이나 극장이 입주한 건물에 대한 세금 감면 같은 ‘시스템 개선’ 차원의 방침도 내놓았다. 몇 개월 전 이에 관한 계획을 처음 접했을 때는 그 의미를 잘 몰랐다. 이번에 종합 계획을 접하고 보니, 아! 유통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간간이 좀 작은 규모에서 예술 유통에 관한 논의는 있었다. 마켓 유치나 재공연 지원 사업 등이다. 그런데 이걸 ‘통으로’ 접하니 문득 나 자신도 ‘부산엔 시장이 없다’는 생각에 너무 파묻혀, 이 명백한 초연결과 유통의 시대에 그쪽 고민을 거의 하지 못했음을 깨우쳤다.

문화정책이란 이런 식으로 큰 단위에서 방향을 제시하거나 틀어주는 일을 할 수 있음도 느꼈다. 분명한 사실이 있다. ‘유통만으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고 거듭 생각해 봐도 유통이 정말로 중요해진 시대에 우리는 닿았다. 도전해 볼 가치가 큰 방향이다. 구체적인 방향에 관해서는, 이쪽 경험이 없는 나는 잘 모르겠다. 다만, 예술문화 분야가 사회와 맺는 관계의 유기성을 크게 끌어올릴 필요는 있다. 예술도 알고 사랑하며, 사회가 돌아가는 상황에도 식견이 있는 문화행정·정책 분야 전문가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다. 수요도 높아질 것이다. 예컨대 각급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 요청 수요가 커지고, 교육청은 이를 위해 예산을 투입할 준비까지 돼 있는데, ‘저는 문화예술 전문가라 교육청 시스템은 잘 모릅니다만’이라고 말해서는 아예 유통망을 짤 수가 없다. 지금으로서는 유통에 주목하는 정책 변화가 성공할지 못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다.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부산 지역 문화예술 유통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김형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연구본부 부연구위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유통을 ‘물품 따위가 생산자에서 소비자, 수요자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되고 분배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문화예술에 대입하면 문화예술을 창작자에게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활동이 될 것이다. 사실 문화예술이라는 용어가 포괄하는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따라서 문화예술 유통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도 그만큼이나 다양하다. 하지만 지면의 제약 때문에 공연 예술·미술 유통 관련 수치로 소략하게 얘기를 풀어나가려 한다.¹

부산의 공연예술 및 미술 유통

공연예술 유통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이 개최되는 만큼 서울아트마켓과의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다. 계획상으로 약 100여 편이 참가 예정이며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형 마켓’으로 기획된 행사이다. 하지만 행사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배후지역의 공연예술 시장이 서울 대비 제한되어 있어, 그에 비례하여 참여 작품 및 관람객의 성장은 서울아트페어보다 상대적으로 더딜 수 있다.² 따라서 행사의 안정 및 성장 촉진을 위해서 출품작과 관람객 모두 타 지역에서의 행사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제시와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23년 7월 서울과 부산에서 개막된 공연예술 작품은 각각 671편과 110편이다. 단순 비교 시 서울의 공연예술 개봉 작품은 약 6.1배에 달한다. 인구규모를 고려하여도 서울에서 더 많은 작품이 개봉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서울 및 부산의 자체 인구와 비교 시 인구 만

1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통계나 데이터 대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도적으로 생산하거나 정리하고 있다. 또한 공연예술 및 미술과 관련한 통계나 데이터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위탁하고 있다. 본 글에서 사용한 자료는 인구 등의 일부 행정 자료를 제외하면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한 자료의 수치를 사용하였다.

2 본 글에서 ‘시장’(market)은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와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명당 공연예술 작품 개봉은 약 0.712편, 0.332편, 각각의 배후지역인 경기도와 경상남도의 인구를 합산하여 비교하면 만명당 개봉작은 약 0.287편과 0.167편으로 나타났다. 단순 비교한 6.1배 수준은 아니더라도 동일한 인구당 서울에서 약 1.72~2.15배 많은 작품이 개봉되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2023년 7월 서울과 부산의 공연장 수는 각각 1,073개와 162개로 약 6.6배 수준이다. 다른 지표들도 편차는 있으나 서울 시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외국인 바이어의 직접 방문이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되었다는 점도 행사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다. 인천공항을 통해 대부분의 국가와 연결된 서울과 달리 부산의 국제선은 상당한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을 방문하려는 외국인 바이어는 인천공항에서 다시 부산까지 이동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산의 공연예술 유통이 서울보다 상당히 제약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의 공연예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가덕도 신공항의 개항도 예정되어 있으며, 부울경 지역의 자체 인구도 상당한 만큼 앞으로 부산만의 독자적인 예술마켓이 성공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체적인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공연예술 시장에 비해 미술시장은 아트페어나 경매에 출품되는 작품에 따라서 규모의 등락이 심하다. 그러나 이제야 독자적인 예술마켓을 시작하는 공연예술 유통에 비해서, 미술유통에서 서울과 부산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Kiaf'보다 10년이나 후발주자인 '아트 부산'이 서울 지역의 아트페어를 빠르게 따라잡아 규모의 측면에서는 매년 1~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미술품 거래의 경우에는 창작자와 소비자가 서울에서 만나야 하는 당위성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부산 지역의 아트페어 선전도 계속될 수 있다고 본다. 아트 부산, BAMA 두 아트페어의 매출액을 우리나라 전체의 2022년 추정 매출액과 비교한다면 전체의 약 33%로 서울에 비하면 규모는 작으나 상당히 준수한 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 가치의 불확실성과 바람직한 로컬 문화예술 유통의 발전 방향

이처럼 부산의 문화예술 유통은 서울과 비교하여 수치상 열세에 놓여있기는 하지만 부산에게 주어진 외부적인 여건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배후지역의 인구 규모, 교통망 등에서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연예술 시장, 미술시장이라는 것이 상당부분 인위적인 개입과 함께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초창기 국립 공연예술 단체나 미술관 등이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자. 또한 문화예술 투자 역시 규모의 측면에서 여전히 차이가 상당하다. 물론 그 개입 목적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위적인 개입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문화예술이 가치의 불확실성(uncertainty of value)이 큰 경험재(experiment good)이기 때문이다.³ 풀어서 설명하면, 문화예술은 소비자가 경험 이전에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명성(reputation)에 의존하는 소비를 하게 된다.⁴ 따라서 어떤 시설에서

3 Nelson, P. (1970). Information and consumer behavior.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8(2), 311-329.

4 소위 말하는 작품을 보는 눈, 안목이 생길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생각해 보자.

누가 제작하고 출연하는지 등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좋은 작품이라는 신호(signal)로 작용할 수 있다.⁵ 자연히 많은 투자를 받거나 먼저 출발한 지역이 유리한 구조가 형성된다.⁶

그렇기에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후발주자의 한계를 극복하는 가장 원론적인 방법이 타 지역·단체를 압도하는 ‘명성’의 확보이다. 보통 로컬 문화예술 유통과 관련한 신문에서는 행사에 가장 많은 인원이 방문했거나 가장 많은 금액이 거래되었다는 기사로 점철된다. 필자는 이러한 기사들이 문제의 핵심을 빚겨가고 있다고 본다. 양적 성장은 우월한 조건을 구비한 서울과 비교하면 부산이 항상 불리한 상황이며, 따라서 부산의 문화예술 유통은 매출액·관람객의 일시적 증가보다는 예술가와 소비자의 지속적인 경험 향상과 더불어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⁷

명성은 쉽게 쌓이지 않는 법이다. 부산에 가면 늘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고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 부산 문화예술 시장에서는 내 작품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형성은 부산의 문화예술 유통 발전을 위해서 금액으로 측정하는 양적 성장보다 중요하다고 믿는다.⁸ 명성의 구축은 우수한 신예 예술가의 참여와 신규 소비자의 구매로 이어질 것이고, 행사의 내실 측면에서도 금액적인 부분에만 치중하는 양적 성장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산의 문화예술 유통마켓에 상대적으로 더 참여하고 싶어 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성공한 것이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올해 시월에 있을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글을 마친다.

5 단, 신호를 제공하는 것이지 작품의 실제 가치와는 별개이다.

6 문화예술 소비 경험이 없는 소비자가 명성을 선점한 서울의 단체, 예술가를 맹목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논리적으로 명성 확보는 문화예술 유통의 양적 성장으로 이어지지만, 양적 성장은 명성 확보를 항상 담보하지 않는다.

8 물론 이러한 목표의 달성은 화폐로 측정한 양적 성장보다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행사에 참여한 예술가나 소비자의 평판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일회성 만족도 조사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두 지역을 모두 방문한 개인을 대상으로 타 지역과의 상대적인 만족도 측정과 같은 방안이 적절하다. 최근의 설문 분석 기법은 매우 발전하였기 때문에 단순 만족도 조사의 집계치 수준으로는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다. 장기적으로는 과학적인 분석 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교한 설문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산을 ‘공연예술 국제시장’으로

이종호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 예술감독

부산, 공연예술 중심도시로의 변신은 ‘정해진 운명’

아무래도 부산은 공연예술 중심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 같다. 아니, 거듭날 것이 분명하다. 우선 2030 엑스포 유치에 도전장을 내민 순간, 이미 ‘대형 고품격 문화예술도시’ 혹은 ‘본격적 문화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 아닌가? 거기에 클래식 음악 전용 콘서트홀과 오페라하우스가 2-3년 이내에 연달아 개관한다는 소식만 해도 가슴 뛰는데, 올 가을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BPAM)이 출범하고 내년부터는 한국문예회관연합회의 공연예술마켓인 해비치축제마저 부산에서 열린다고 하니, 이제 부산의 공연예술 중심도시로의 비상은 정해진 운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그중에서도 당장 올해 출범하는 BPAM을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공연물들의 소개와 유통이라는 기본적인 기능을 넘어, 부산시민은 물론 전국의 관객들, 외국 관광객들까지 끌어들이 만큼 매력적인 프로그램과 세련된 조직과 진행으로 이 행사를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BPAM이 단순한 마켓을 넘어 ‘축제형 마켓’을 지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축제와 마켓의 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 마디로 ‘공연예술의 국제시장’이 되어야 한다. 시장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 관계를 맺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한쪽에서 펼쳐지는 풍물놀이를 즐기기도 하는, 즉 단순한 거래행위를 넘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포괄적 공간이다. BPAM은 부산을 포함한 국내외 모든 공연물을 보여주고, 국내외의 모든 바이어와 셀러들이 모여들며, 이에 따라 국내외 작품들이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선택되고 팔리는 장터, 그리고 바이어들끼리 혹은 셀러들끼리 혹은 바이어와 셀러들과 예술가들이 함께 만나 새로운 공연예술의 미래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도모하는 장터가 되어야 한다.

BPAM이 성장하면 우선 부산 시민들이 예술적 품격과 대중적 친근성을 동시에 지닌 작품들을 즐기면서 예술적 안목을 높여갈 수 있다. 더 나아가 한국 전체의 공연예술계 활성화와 수준 향상을 위한 첨병

의 역할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한국 공연예술의 해외 진출에도 당연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직도 우리 공연예술의 해외 진출은 체계적이거나 장기적인 기획보다는 산발적이고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의해 성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점에서 BPAM이 기본계획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세계 각국에 주요 인맥을 구축한다면 한국 공연예술의 세계무대 진출에 결정적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국내 공연장 및 예술축제들의 프로그래밍 수준을 단박에 상승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국내 공공 공연장들이 매년 올리는 외국작품의 건수와 품질은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가장 큰 원인은 예산부족이라고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외국 작품들에 대한 정보와 접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큰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부산을 넘어 전세계 문화권으로 '획기적 프로그래밍이 필요해'

특히 국제 프로그램 구성에서는 BPAM이 세계 최고의 품질수준과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배려하는 선두주자가 되어야 한다. 유럽이나 북미 등 이른바 선진국들의 축제나 마켓을 보면 대부분 자기 지역의 예술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가까운 주변에 이미 좋은 작품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발주자로서 BPAM이 존재를 부각시키려면 유럽, 미주 등 공연예술 주류국가들은 물론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오세아니아 등 5대양 6대주의 작품들을 골고루 참여시킴으로써 명실상부 글로벌 마켓으로 키워야 한다. 단언컨대 전 세계 공연축제나 마켓 가운데 이처럼 세계 모든 지역, 모든 문화권의 작품을 균형 있게 보여주는 곳은 없다. 부산이 그 역할을 한다면 세계 공연예술축제의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부산을 글자 그대로 국제시장으로 만들어보자. 내 물건 하나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전체를 소유하거나 운영할 경우 기대되는 가시적, 비가시적 효과는 엄청나다. 올림픽이나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이미 선례를 보여주지 않았는가.

freelance

• 문화 + 노동 •

예술인은 근로자인가요?

or

서해든

부산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부 주임, 공인노무사



Employee

예술인의 근로자성 및 관련 노동관계법령

“예술인은 근로자인가요?” 이 물음에 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술인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하자니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방송연예계와 문학계에 있는 주변 예술인들에게 이 질문을 해보니 다소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다들 입 모아 “나는 프리랜서라서 노동법 적용 받는 근로자 아닌데?”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예술인의 대부분은 프리랜서의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1년 실시한 <예술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자유계약자)는 78.2%, 겸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는 72.2%이었습니다. 전업 예술인 중 프리랜서 종사 비율은 방송연예(91.5%), 대중음악(89.3%), 만화(87.7%) 분야에서 높았고, 겸업 예술인은 방송연예(92.9%), 대중음악(81.0%)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무엇이 다르고, 예술인은 정말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걸까요?

프리랜서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통상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근로자와 자영업자와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프리랜서(freelance)의 어원은 중세 시대 어떤 영주에게도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로운(free) 창기병(lance)을 뜻하는 것으로, 중세 시대 용병단에서 유래된 말이라고도 합니다.¹

근로기준법 제2조에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1 황준욱, <프리랜서 고용관계 연구>, 2009.

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²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는 데에 있습니다. 만약 예술인이 프리랜서라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여지가 적거나 거의 없을 것이지만, 근로자라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것이며, 그중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해고 등의 제한(제23조), 임금 지급(제43조), 근로시간(제50조) 등이 적용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퇴직급여 지급(제4조) 등이 적용될 것입니다.

물론 프리랜서인 예술인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를 두고 있기에 예술인 즉,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고용·산재보험 가입,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계가 마주한 예술인의 근로조건

예술인은 ‘근로자’여야 현재 대부분의 노동관계법령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예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을까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방송작가를 비롯한 방송연예 예술인의 경우 연차가 낮을수록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예술 예술인의 경우 프로젝트 업무의 특성상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지만 프리랜서 계약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편, 큐레이터를 비롯한 재단이나 미술관, 박물관에 속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작성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정해진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등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근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니 노동관련법령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지는 않은지, 문화예술계는 예술인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인의 근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달라져야 할 사회

예술인의 고용형태에 대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낸 결과, 최근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예술인의 근로자

2 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송연예 예술인 중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방송사가 방송작가를 프리랜서로 계약한 뒤 개편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판결하였습니다.³ 고용노동부 역시 지상파 방송 3사 방송작가 근로감독 결과 일부 방송작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방송업계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지속하여 지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⁴

그러나, 예술인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예술인의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예술인이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받는지,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지, 기본급 등이 정해져 있는지 등을 판단하여 예술인이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야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 요소에서 반드시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예술인은 많지 않을 것이며, 애초에 예술인을 고용하는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 역시도 남아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술인이 근로자인지에 대한 논의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정부로서는 예술인의 근로 환경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예술인 고용형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노동관계법령의 사각지대에 있어 근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노동관계 법령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령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도 헌법에 따라 당연히 근로의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변화하는 노동의 중심에 있는 예술인이 근로조건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뛰어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서울행정법원 2022.7.14. 선고, 2021구합63518 판결.

4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지상파 방송3사 방송작가 근로감독 결과>, 2021.12.30.

축제로 시작해 도시와 국가를 연결하는 문화외교 프로그램 '모멘텀(Momentum)'

원 향 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부산의 노력은 유치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도시 차원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관점의 전환은 적극적인 외교 주체로서의 도시의 발견이다. 그동안 도시 차원에서도 해외 도시 간 연결이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이 있어 왔지만, 외교의 파트너는 늘 국가를 우선시하다 보니 도시 차원의 창의적인 연결에 대한 고민은 다소 부족했다. 그러나 2030 부산 엑스포라는 큰 과제를 준비하면서 도시가 주도적으로 해외 도시와 연결하고 협력할 수 있는 주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한 것 같다.

다양한 축제의 도시 에든버러에서는 2011년부터 에든버러 페스티벌 기간 중 해외 델리게이터를 초청하는 '모멘텀'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는 에든버러 페스티벌, 스코틀랜드 영국문화원,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와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도시 차원에서 해외 문화 교류를 어떻게 꾸려나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축제가 쏠아올린 도시 간 문화외교의 시작

2011년 에든버러 페스티벌 기간 동안 3개국에서 40명의 게스트를 초대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2013년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영국문화원, 에든버러 페스티벌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정기적인 문화 외교 파트너십으로 발전되면서 '모멘텀'이라는 브랜드로 공식화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해외 예술가, 프로듀서, 정부 기관, 자금 제공자 및 에든버러 페스티벌 간 장기적인 관계 구축
- 폭넓은 스코틀랜드 문화 소개
- 에든버러 페스티벌, 스코틀랜드 예술가, 스코틀랜드 예술작품의 국제적 협력 기회 제공
- 참가자 간 상호학습 및 이해, 관계 설정 및 협업을 위한 새로운 기회 구상

델리게이터 맞춤형 교류 프로그램 '모멘텀' 참가기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는 지역문화재단으로는 처음으로 주최 측의 초청을 받아 2023년 8월 5일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사전에 관심 분야, 협력 경험, 교류 희망기관 등을 주최 측에 알려주었고, 이를 토대로 주최 측은 사전 온라인 미팅을 통해 교류할 수 있는 기관들을 소개해 주었다. 문화재단과 유사한 조직인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과 장애예술, 예술교육, 커뮤니티 아트, 15분 도시 등 현재 우리 재단의 주요 의제들을 제안하였고 관련된 기관들을 소개받았다. 15분 도시 주제의 경우 20분 네이버후드 전략을 추진 중인 글라스고로 이동하여 현지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는 스케줄을 따로 준비해 주었다. 또한 비슷한 시기 방문했던 베트남 문화관계자들과도 델리게이션 미팅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크리에이티브 카본 스코틀랜드 미팅 모습

5일간 만났던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 유관기관 :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 글라스고 라이프, 크리에이티브 카본 스코틀랜드
- 공공기관 : 에든버러 시청(문화와 웰빙 파트, 문화 다양성 파트)
- 예술단체 : Vanishing Point, Cove Park(레지던시 운영), Unlimited(장애예술), Tricky Hat(커뮤니티 아트)
- 축제 관계자 : Imagine(에든버러 어린이 축제 주관), 에든버러 과학 축제

‘모멘텀’에 참여한 기관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통해 지역적 여건은 달라도 문화행정과 관련된 도전과제들은 공통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 또한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끊임없이 외부적으로 증명해 내고, 타 영역과의 협업을 위해 조직 간 칸막이 행정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모멘텀’은 공통의 문제를 인식하고 지혜를 공유하는 경험을 통해 더 넓은 차원의 동병상련과 동료의식을 일깨워 주었다.

올해 한국 방문단은 공연관계자 2명, 문화재단 2명, 영국문화원 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각각의 관심사와 욕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구성해 주었다. 이런 운영방식이 주최 측으로서는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방문단 입장에서는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교류에 대한 의지가 불타오를 수밖에 없는 감동적인 환대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공연 관계자의 경우 에든버러 축제 공연의 초청 등의 즉각적이고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에든버러 시 문화다양성부서 담당자 미팅 모습

축적된 경험으로 진화를 모색하는 ‘모멘텀’의 미래

실제로 이런 감성적 환대에 대한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목표의 성실한 이행 결과로 이어졌다. ‘모멘텀’ 10주년 기념 리포트(MOMENTUM PROGRAMME: 10TH ANNIVERSARY)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의 성과로 장기적인 관계 형성, 축제도시로서의 에든버러의 위상 제고 및 스코틀랜드 문화예술의 확산, 스코틀랜드 예술가들의 국제적인 협업 기회 제공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언어 장벽, 시간 부족, 델리게이터의 일회적 참여 등으로 안정적인 관계 형성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후속조치의 경우 델리게이션의 자유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공고한 관계 유지에 대한 숙제가 늘 남아 있는 셈이다. 해외 델리게이션들의 90%가 한 번 참석하는 경우에 그쳐 이 또한 지속적인 관계 성장에 대해서는 한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모멘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재까지 방문했던 1,800여명의 델리게이터들의 향후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후속 조치 시행, 안정적인 전담 직원 확보, 사업 예산의 장기적 운용 등을 고민하면서 ‘모멘텀’이 스코틀랜드와 교류가 시작된 진정한 모멘텀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이어나가고 있다.



성공적인 도시 간 문화교류를 위한 협력의 태도

‘모멘텀’은 국제 문화 교류의 플랫폼을 만드는 주체로서 도시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해주었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델리게이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은 디테일한 고민과 배려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디테일이 가능한 이유는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세 기관(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영국문화원, 에든버러 페스티벌)간의 긴밀한 협력관계일 것이다. 세 기관이 함께 하나의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데에는 오랜 기간동안 축적된 신뢰와 적절한 균형이 작용했을 것이다. 에든버러 페스티벌 네트워크 세미나에서는 페스티벌 주체 간 협력 관계의 성공적인 유지의 비결로 ‘공통의 목표를 발견하되, 협업의 가능성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협력해야 할 지점과 경쟁해야 할 지점을 슬기롭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모멘텀’ 또한 10여 년의 기간 동안 지속되어온 조직 간의 슬기로운 역할 분담과 거리두기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 왔기에 계속 진화하고 있을 것이다.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도시 차원의 프로그램에는 이러한 비결이 유효한 명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Creative Industries Policy & Evidence Centre, 『MOMENTUM PROGRAMME: 10TH ANNIVERSARY』, 2021.



2022년 부산 장애예술인 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특아보기

이상헌

2022년 부산 장애예술인 활동 실태조사 책임연구원, 총 평론가

실태 조사의 배경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서도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2020년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 예술인 지원법)이 제정되어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에는 5년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기되어 있는데, 이를 위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22년 부산 장애 예술인 활동 실태조사」(이후 ‘부산 실태조사’)는 이러한 배경에서 실시되었다.

‘장애 예술’의 정의

‘장애 예술’은 ‘장애인 예술’, ‘장애와 예술’ 등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장애 예술’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는 의미인데, 다양한 관점 차이를 모두 포함할 수는 없지만, 장애 예술이란 ‘장애 경험을 다루는 예술로 장애인 고유의 당사자성을 드러내는 활동’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부산 장애 예술인 활동 실태조사

부산 장애 예술인 활동 실태조사 중 설문조사는 장애 예술인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장애 예술 관련 복지기관 및 협·단체 150개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장애 예술인 모집단의 경우 지난 2021년 부산예술인 실태조사 응답자 중 장애인등록이 완료된 예술인들과 부산문화재단 장애 예술지원사업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실태조사의 지향점은 ‘부산형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에 있다. ‘부산형 지원 정책’은 ‘부산’의 장애 예술인이 처한 사회, 문화,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다. 우리의 첫 번째 고민은 그것을 가능하게 할 질문을 구성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고민은 100명이라는 적은 수의 모집단으로 여러 장애 유형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 인가였다. 해결 방법은 FGI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질문이 놓치는 부분과 모집단의 한

계를 보완하는 것이었다.

응답자의 64.0%가 예술활동 증명에 등록하였고, 36.0%는 미등록이었다. 미등록 이유 중 '예술인 활동 증명을 몰랐다'가 50.0%로 가장 높았고, '절차가 까다롭다'가 36.1%였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문제가 예술 부문에서도 어김 없이 나타났다. 전국 조사와 달리 부산의 실태조사에서 장애 예술인 조작성 정의에 '스스로 전문예술인이라 여기고 있음.' 항목을 포함했다. 이 항목이 지나치게 포괄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포괄적 항목을 배제하면 장애 예술인 인정 폭이 좁아져 놓치는 부분이 많을 수 있다는 면에서 이 항목을 포함하였다.

실태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것

'정책별 시급도 및 중요도 포트폴리오 분석'에서 부산 장애 예술인이 원하는 지원 정책 방향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 모든 항목이 5점 기준에 평균 3.6점 이상으로 부산지역 장애 예술인 정책 시급도 및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문화시설/프로그램의 장애인 접근성 확대'와 '장애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장애예술인 일자리 확대' 항목은 장애 예술인과 기관 및 협회·단체 모두 시급도,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생활 안정과 장애 인식 그리고 이동 편의성 같은 창작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때까지 가장 절실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 준다.



장애예술인 정책별 시급도 및 중요도 포트폴리오 분석

제언

장애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공공지원에서 소외되었고, 복지적·시혜적 차원에서 있었던 장애 예술 활동 지원이 공식화·본격화한다는 점이다. 반면 단점은 이러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결국 장애 예술

장애 예술인 활동 지원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

나가는 말

인과 비장애 예술인의 차이를 더 공식화하고 공고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도’가 아니라 장애인‘만’의 문제로 축소되거나 배타적 특권으로 보일 우려이다. 이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 장애예술인 지원의 궁극적 목표를 ‘포용적 예술(inclusive arts)’ 실현에 둔다. 포용적 예술은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 향상을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을 시혜적이거나 보호적인 관점이 아니라 국가가 지향하는 ‘창조적 역량’의 핵심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점¹에서 긍정적이지만, ‘inclusive’를 해석한 ‘포용’이란 단어가 주류인 비장애 예술계의 수용을 바라거나 미학적 종속의 위양스가 있어서 ‘inclusive’를 ‘포용’보다 ‘포함’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리하는 의미로 부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 예술인 활동 지원에서 고려할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자. 첫째,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또 다른 차별과 소외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보다 촘촘한 계획과 장애 유형별 맞춤 지원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이다. 장애인을 예술인으로 교육하고 전문성을 높일 전문 강사 양성과 교육 대상에 장애인 부모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시간’이다. 지금은 비장애 예술인 지원에서도 장기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장애 예술인을 지원할 때는 단기적 결과보다 과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환경과 태도를 바뀌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장애 스펙트럼의 다양성은 매우 중요하고 인상적이었으며, 이를 실태조사에 모두 담기 힘들다는 한계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부산 실태조사는 효과적인 장애 예술인 활동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시작점이다. 공은 정책을 수립하는 부산시에 넘어갔다. ‘부산형 정책’을 기대하지만, 다시 한번 짚어야 할 말이 있다. 부산형 정책은 부산 장애 예술 지형을 제대로 반영한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를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대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장애인 당사자주의가 정책 수립 단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2022년 부산 장애예술인 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는 부산문화재단 전자아카이브(e-archive)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 오세형(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사업운영팀장), <포용적 예술로 진화하는 장애인 예술의 해외동향>, <춤in> 2018년 5월.



부산문화재단

• 200여 년만의 대한해협 건너 쓰시마로 향한 조선통신사선(7.26)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연, 이하 재단)과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배)이 협력한 '조선통신사선 13차 항해'사업 조선통신사선이 지난 8월 1일 부산에서 출항하여 쓰시마에 입항했다. 이는 1811년 12차 사행으로 종료된 조선통신사의 일본 항해를 재현하기 위해 2018년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복원한 조선통신사선이 대한해협을 건너 일본으로 입항하는 것이다. 쓰시마시가 조선통신사선을 맞이하는 입항 세리머니를 개최하였고 쓰시마 이즈하라항 축제와 연계한 선상 박물관을 운영, 조선통신사선 해설, 선상 전통 공연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 일본 시모노세키 찾은 조선통신사 행렬(8.21)

재단은 한·일 평화의 상징인 조선통신사 행사가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개최된 바칸 축제로,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부산이 참가해 더욱 뜻깊은 양국의 우호증진의 장이 되었다. 부산에서는 행렬 참가자 및 예술단을 포함하여 약 13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을 위해 엑스포 로고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홍보함과 동시에 문화사절단의 임무를 수행했던 조선통신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알렸다.

•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8.24)

재단은 공연예술상품의 유통 판로를 개척하여 작품 확산을 도모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다양한

장르의 고품격 공연예술을 즐길 수 있는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을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제1회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에는 무용, 음악, 연극, 마술, 코미디, 거리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작품 100여 편이 참가한다.

• 와르르~우르르~모야와 함께 하는 예술모험! 신나는 문화예술교육 페스티벌(8.25)

재단은 부산문화예술교육 페스티벌 <와르르, 우르르, 모야>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5년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9월 5일부터 10일까지를 부산문화예술교육주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사하구 다대포 해변공원과 중구 한성1918 등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시민과 문화예술 활동가들이 함께 하는 기획프로그램, 공연, 전시, 페어, 워크숍, 포럼 등 10여 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 문화재단, 시민, 교원, 전문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개설(8.30)

재단은 8월 30일부터 약 2개월간 부산 문화예술교육의 미래를 여는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인력을 양성하는 <2023 부산 예술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부산문화재단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인력 양성 사업은 [A.B.C SCHOOL], [BS ARTE 아카데미] 등으로 변화해오다, 올해부터 <부산 예술교육 아카데미>로 자리 잡아 연수 대상별, 단계별 맞춤형 강의 및 워크숍을 선보인다.



● **‘착한 가격’으로 믿고 다시 찾는 축제, 문화관광축제가 앞장선다(7.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와 함께 7월 5일(수), 하반기에 열릴 예정인 문화관광축제(지역 관광자원, 전통문화,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화한 특색있는 지역축제 중 문체부가 지정한 86개 축제) 주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먹거리 가격 관리로 호평을 받은 축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먹거리 정보 사전 공개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토의하고 ‘착한 가격’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바가지요금 근절 의지를 담은 서약식도 진행했다.

● **K-콘텐츠와 연관산업 간 동반 진출 촉진한다(7.28)**

문체부는 7월 28일(금), 한국콘텐츠진흥원 광화문본원에서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제10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열고, K-콘텐츠와 소비재·식품 등 연관산업의 동반 진출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논의했다.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는 지난 2월 23일(목)에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K-콘텐츠 수출전략’의 후속 조치로 출범했으며, 그동안 게임, 음악, 방송·영상 등 분야별 수출 지원책과 국가별·권역별 해외 진출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해왔다. 제10차 회의는 약 6개월간 운영한 회의를 마무리하는 회차로서 논의 범위를 콘텐츠와 연관산업으로 확장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 **문체부, 1인·중소출판사의 열악한 환경 개선, 지원에 전면적으로 나선다(8.15)**

문체부는 K-북 도약 비전 선포식을 통해 강조한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 출판산업 지원 핵심정책으로서 1인, 중소출판사들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 창업 초기 단계 출판사들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구축 지원, 출판 콘텐츠 발굴 역량 강화 등을 새롭게 추진, 실천한다. 또한 신성장

분야인 웹소설의 성장을 견인할 프로듀서, 작가 등의 인력양성을 확대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번역 지원도 신규 정책으로 추진한다.

● **한국과 카자흐스탄, 문화로 깊어지는 우정(8.24)**

문체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정길화)과 함께 다큐멘터리와 전통음악,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2022~2023 한-카자흐스탄 상호 문화교류의 해’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는 7월부터 시작한 ▲청년 다큐멘터리 공동 창작·제작 사업을 필두로 ▲한-카자흐스탄 전통문화축제, ▲한-카자흐스탄 애니메이션 특별전, ▲청년연극 공동 창작·제작 사업, ▲김옥선 작가 특별사진전을 진행한다.

● **9개국 해외 문화예술인, 국내에서 K-컬처와 협업한다(8.25)**

문체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정길화)과 함께 한국과 해외 문화예술인의 쌍방향 협업을 지원하는 ‘코리아라운드 컬처(Kore·A·Round Culture)’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인·아웃바운드 행사 개최를 의미하는 라운드 컬처(Round Culture)와 한국을 중심으로 문화교류가 진행된다는 의미의 코리아+어라운드(Korea+Around)를 결합한 쌍방향 국제문화협업 지원사업이다.

●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공유로 새로운 지평 연다(8.30)**

문체부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래 기술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모전을 9월 1일(금)부터 15일(금)까지 개최했다. 문체부는 디지털 콘텐츠 생산·제작의 차세대 도구로서 콘텐츠산업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기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7.6)**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예술위)는 7월 5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문화예술기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회장 백옥선, 이하 전지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전국 공연장 7개소 하반기 대관료 50% 이상 할인! - 2023 민간소공연장지원사업(7.26)**

예술위가 민간공연장활성화 지원 대상으로 전국의 소공연장 22개소를 선정했다. 민간소공연장지원사업(舊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사업)은 예술위원회가 2018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기초 공연예술 분야의 민간 소공연장(객석 수 300석 미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관료를 50% 이상 할인하는 7개 공연장에 대한 자세한 대관신청 정보는 예술위원회 홈페이지와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공연장 홈페이지에서 금년도 하반기 일정으로 대관신청을 할 수 있다.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국내 공연장 최초로 수어통역 안내 영상 상시 제공(8.18)**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극장장 강량원)은 무장애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공연장 최초로 공연 시작 전 음성으로만 안내하던 비상 대피 안내를 수어 통역과 자막이 있는 영상으로 상시 제공한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 창작지원 교류 확대에 힘쓴다(8.29)**

예술위가 예술가를 대상으로 창작지원 및 네트워킹 교류확대에 힘쓰고 있다. 예술위는 지난 8월 24일(목) SF문학에 관심있는 작가 9명을 선발하여 네이버 1784를 방문했으며, 네이버 1784에 구현된 AI·로봇·디지털트윈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체험했다. 또한 북튜버이자 지식 크리에이터로 활동중인 이시한 성신여대 겸임교수를 초청하여 ChatGPT 기술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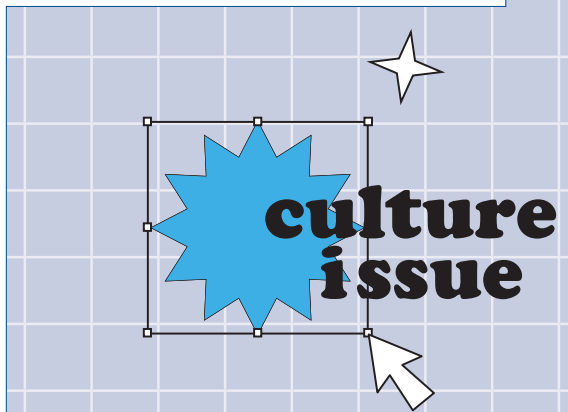
대한 이해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법, 네이버 생성형 AI서비스 발표 등에 대해 특강을 마련했다.

● **대학로 소극장과 더불어 상생하는 ‘함께 가는 대학로’사회공헌 프로그램 추진(9.1)**

예술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로 인근 소극장에 시설 안전 점검 및 노후화된 장비 수리 등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 ‘함께 가는 대학로’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월 30일 밝혔다. 예술위원회는 (사)한국소극장협회와 함께 선정한 소극장을 대상으로 △공연장 시설 안전점검 △음향·조명 노후 장비 점검 및 부품 교체 △컨트론타블럼 환경개선 △무대 활용 노하우 전수 등 무대 시설 개선과 효과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9.1)**

예술위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공동 주최로 오는 9월 7일(목) 오후 3시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윤리·인권소위원회와 (사)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장애예술에 대한 전문가 담론과 활동 중인 예술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장애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과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문화재단

- **서울문화재단, 예술인 지원단체 2곳과 손잡고 위기의 예술인에게 희망 주는 협력사업 8월 첫 삽(8.9)**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이하 재단)은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이사장 이해준) 및 한국연극인복지재단(이사장 길해연)과 '서울예술인 생활기반지원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7일(월) 서울연극센터에서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추진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 **서울문화재단, 예술활동 지속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시동... 대학로센터서 <예술가의 인생수업> 11월까지 15회 개최(8.24)**

재단은 9월 1일(금)부터 11월 20일(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센터에서 토크 프로그램 <2023 예술가의 인생수업>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현재 문화예술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예술가와 전문가를 초대해 '예술과 도시', '예술가의 작업실', '브랜딩과 비즈니스', '슬기로운 예술생활' 등을 주제로 참여자와 노하우를 나눈다.

- **서울문화재단, 갤럭시아넥스트와 30일 MOU 체결, 공연예술인 33인 NFT 발행해 오는 12월 발표(8.31)**

갤럭시아넥스트(대표이사 신동훈)와 기초 예술 분야 예술인의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 토큰) 발행과 유통을 협력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30일(수) 체결했다. 2년차를 맞이한 재단의 <기초예술분야 예술인 NFT 런칭 사업>은 국내 NFT 플랫폼 '메타갤럭시아(MetaGalaxia)'의 운영사 갤럭시아넥스트와의 협력을 통해 기초예술인들의 NFT 작품 제작부터 발행, 유통 전반을 지원하는 협력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 **서울문화재단-포르쉐코리아, <드리머스 온> 프로젝트 최종 선정작 발표... 서울의 꿈과 색 표현한 미디어아트 선정작 2선 내달 코엑스 전광판서 공개(9.15)**

재단과 포르쉐코리아(대표이사 홀가 게어만)는 지난 14일 서대문구 충정로 청년예술청 SAPY에서 국내 신진 미디어 아티스트를 지원하는 <포르쉐 드리머스 온 미디어아트 프로젝트>의 최종 선정작을 발표하고 지원금 총 9천만 원을 전달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 프로젝트는 이번에는 '도시의 꿈(Dream)과 색(Colour)'이라는 주제로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공모를 진행했으며, 김정태의 3D 애니메이션 '레인보우 버스투어'와 조영각의 융합예술 영상작품 '다시 피어난 거리의 노래' 두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자는 각각 창작지원금 4천5백만 원과 함께 오는 10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삼성동 무역센터 아티움의 국내 최대 크기를 지닌 외벽 곡면 스크린에서 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갖는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국립한글박물관과 공동 기획전시 '파란마음 하얀마음, 어린이 노래' 개최(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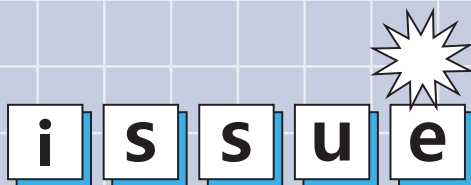
세종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종률)과 국립한글박물관(관장 김영수)은 한글 동요를 주제로 한 기획전시 '파란마음 하얀마음, 어린이 노래'를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박연문화관 전시실에서 공동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글문화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의 특성을 잘 살려 아름다운 한글을 품은 동요 노랫말과 동요집, 영상 등 15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강원문화재단

- **강원 콘텐츠산업 라운드테이블 개최(8.10)**
강원문화재단(이사장 김별아, 이하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선정한 강원특별자치도 콘텐츠산업 거점기관으로서 도내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강원 콘텐츠산업 라운드테이블'을 8월 22일(화)과 9월 8일(금) 춘천에서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도내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콘텐츠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 **강원문화재단, '2023 강원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9.14)**
재단에서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약 2개월 간 '강원 문화예술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강원 문화예술아카데미'는 강원특별자치도내 문화예술기관 행정인력, 교강사, 기획자 등 대상을 세분화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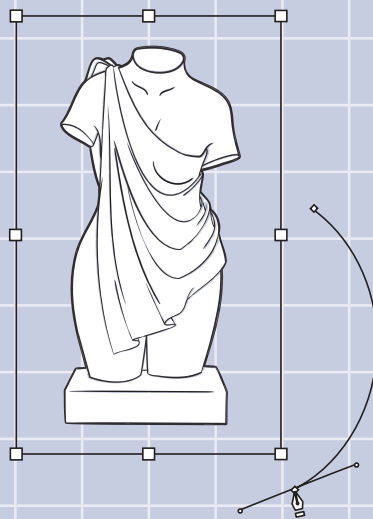
인천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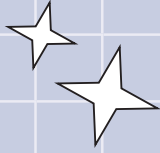
- **한국근대문학관 소장 고문헌 681점 디지털화 무료 공개(8.10)**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구, 이하 재단)이 운영하는 한국근대문학관의 소장 고문헌 자료 681책(점)이 디지털화되어 무료 공개됐다. 고서 160책과 고문서 521점이다. 이번에 디지털화되어 공개된 고문헌 자료는 오직 문학관만 소장하고 있는 것들이다.
- **인천아트플랫폼, 더 풍성하게 돌아온 프리마켓 '만국시장' 개최(9.13)**
재단이 운영하는 인천아트플랫폼에서 9월 16일(토)~17일(일) 친환경·제로웨이스트 주제로 한 만국시장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가 열렸다. 만국시장은 인천문화재단과 생활문화공간 달이네가 함께하는 '주제가 있는 프리마켓'으로 올해 9월과 10월 총 4회 개최한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 영화 할인 혜택 제공을 위해 메가박스와의 협약(8.9)**
경남문화예술진흥원(원장 김종부, 이하 진흥원)과 메가박스중앙(주)(대표 홍정인)이 8월 8일, 진흥원 합천청사에서 도내 예술활동 증명자 대상 영화 할인 혜택제공과 경남 메가박스 극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도 단위 문화예술단체 초청 간담회 개최(8.29)**
진흥원은 경남 문화예술 생태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 단위 문화예술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흥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내 문화예술 정책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문화예술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문화재단

• 1,500년 전 해양 실크로드를 이용한 마한의 역사흔적 찾기(8.10)

전라남도과 전남문화재단(문화재연구소, 이하 재단)은 8월 31일부터 11월까지 6개 답사 코스로 6회에 걸쳐 `마한 해양 실크로드 유적답사'를 추진한다. 전라남도 주최, 전남문화재단(대행기관 : the베스트여행사) 주관으로 추진하는 `마한 답사 프로그램'은 전남도의 지속적인 지원 아래 `마한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3년째 추진하고 있다.

• 전남문화재단,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사업' 공모(8.29)

재단은 9월 22일까지 `전남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사업'참여 예술인을 공모했다. 이 사업은 전남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1인 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첫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창작환경이 열악했던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 소요되는 활동비를 일부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소득은 낮고 장애등급이 높은 예술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 마한 인정도서 발간 기초연구 착수(9.11)

전라남도과 재단은 처음으로 영산강유역 마한 교과용 인정도서 발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 이는 전라남도 주최, 전남문화재단(대행기관 : 마한역사문화연구회) 주관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마한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중·고교 역사교과서(검정교과서)에 마한사 서술 확대를 위한 1단계 기초연구 사업이다.

제주문화재단

•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인과 함께 지원체계 개선한다(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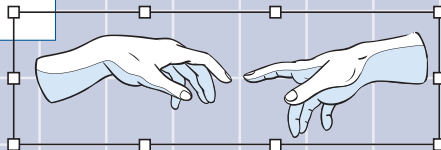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이하 재단)은 예술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9월까지 예술가와와의 소통 채널을 다각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소통 채널은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온 의견수렴 채널의 외연을 확장하여 더욱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재단은 예술인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는 한편 예술현장 청책(聽策)투어도 새롭게 추진하여 이사장의 현장 중심 소통을 확대했다.

• 제주문화예술재단, 찾아가는 문화공연「마을, 예술로 있다」(8.7)

재단이 문화서비스를 희망하는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 「마을, 예술로 있다」를 11월까지 진행한다. 「마을, 예술로 있다」는 도내 읍·면·동 지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역 특색에 맞는 기획공연, 마을 행사 공연, 주민 음악 교육 등 마을에서 희망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역 밀착, 수요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문화 격차를 해소에 기여하자는 것이 취지이자 목표이다.

• 2023 제주문화예술섬 네트워킹 데이... 지역 문화자원과 로컬브랜딩 미래 모색(8.9)

재단은 8월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제주시 함덕해수욕장 인근 카페 사계에서 2023 제주문화예술섬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 제주문화예술섬 네트워킹 데이는 예술가, 기획자, 활동가,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모여 강연, 라운드테이블, 포럼을 통해 문화예술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문화예술 플랫폼 행사이다.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vol. 22



ISSN 2713-4113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발행일 2023. 09. 30. 발행인 이미연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84-1(감만동) TEL 051-745-7205~8
www.bscf.or.kr 편집위원 김경화 송교성 이지훈 서승우 최시내 편집기획 조정은 원항미 심규리 고나영 디자인 제작 올드뉴스
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